경의에 비낀 위인의 세계

평 양 출 판 사
주체112(2023)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도 있듯이 하나의 사실, 생활의 사소한 세부에도 위인의 거룩한 인간상이 비끼고 그 향기는 만사람을 매혹시킨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는 경의라는 말과 더불어 경애하는 그이의 한없이 숭고하고 고결한 풍모를 더더욱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

주체112(2023)년 1월 1일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으며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으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시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우러러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온 나라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차넘쳐있던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

를 표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에 온 나라 인민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 뵈옵는 모습은 아니였다. 새해마다, 중요한 계기나 뜻깊은 기념일, 명절때마다 뵈옵는 모습, 너무도 눈에 익은 모습이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받아안는 충격은 커만가고 뒤따르는 격정 또한 더욱 강렬해지는것이다.

단순히 선대수령에 대한 충의심이나 도덕적의무감만으로 설명할수 없는 위대한 충정과 참다운 도덕의리의 세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모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10여년세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함께 모시도록 하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신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수령영생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만년지계를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으로 이어주

신 특출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옥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와 같은 신념의 구호들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태양상을 모신 공화국의 최고훈장과 최고상, 광명성절이 제정되였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금문자로 뚜렷이 아로새긴 조선로동당규약과 공화국의 헌법이 채택, 제정발포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나라의 방방곡곡에 모시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지극한 정성은 또 얼마나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는가.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조국과 민족을

위해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인민의 태양으로 천만년 길이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누구나 소원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한평생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하시며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업적을 이룩하시고도 위대한 어버이의 동상을 모시고싶어하는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절절한 소원만은 들어주지 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온 나라 강산에 곡성이 터져오르던 그날에도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작품앞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우리 인민의 죄책감과 통분함은 하늘에

닿았고 자식의 도리, 전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을 태웠다.

인민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이야 오죽하시였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잘 모시자고, 우리는 장군님을 영원히 도덕의리적으로, 량심적으로 진실하게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발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어버이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실것을 결정하였음을 엄숙히 공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나간 며칠후 우리 인민은 당보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를 받아안았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을 인민들이 알아야 한다, 생전에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를 모시는 사업도 허용하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그대로 알려주어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절감하고 더욱 강렬해지는 그이에 대한 흠모의 열기속에 장군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셔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 간직된 숭고한 뜻이였다.

당시 우리 인민 누구나가 크나큰 격정과 뜨거운 눈물속에 받아안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8(1999)년 10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는 탄생 6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싶어하는 일군들과 인민들의 제의를 만류하시고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본분이 있고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있다고 강조하신 그이의 절절함이 담겨져있었다.

나는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혁명전사이다. 나는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

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천하자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 조국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아직도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생일 60돐이라고 하여 나의 동상을 세울수는 없다.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고 애쓰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때에 나의 동상을 세우는것은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나는 권력이나 관직을 탐내는 마음이란 털끝만치도 없으며 오로지 수령님을 잘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충실히 계승완성해나갈 한마음뿐이다. …

일군들이 자신의 동상문제를 들고다니지만 자신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이런 현상은 절대로 묵과하지도 허용하지도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비보가 전해진 그날부터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해달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일과 같이 눈물겨운 편지를 삼가 올리였고 어린아이들까지 자기들의 궁전은 가는 곳마다 있는데 장군님의 동상은 왜 없는가고 하면서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싶다고 울음을 터뜨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이 간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실 장소와 동상형상에서 나서는 문제를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가장 훌륭하게 형상하여 모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주체101(2012)년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수대창작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우러르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실것을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였다.

사실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셔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부 일군들은 장군님의 동상을 따로 모시는것으로 리해하면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모셔야 하겠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장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수령님과 장군님의 동상을 새로 형상하여

만수대언덕에 함께 모시는것이 제일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라고 굳게 믿어온 전체 인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명안중의 명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인민들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된 태양의 모습으로 가장 훌륭히 형상하여 모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태양의 미소를 지으신 모습으로 형상하는것은 인민의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와 업적을 후세에 전하는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주시며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의 세부마다에는 현장에 나오시여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가르쳐주시고 영상사진문헌자료까지 친히 선정하여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흰 제막포가 벗겨지고 환하신 미소로 인민에게 축복을 보내주시는것만 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오자 모든 참가자들이 격정에 넘쳐 터뜨리는 우렁찬 만세의 합성과 함께 장엄한 축포성이 울리는 가운데 가지각색의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만수대의 상공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신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시면서 조용히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극한 충정에 의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온 나라가 다함없는 격정으로 설레였으며 집집마다에서 일터마다에서 우리 인민은 위대한 두분의 태양상초상화를 우러르며 영광과 행복넘친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의 해 마지막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군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인민들에게 장군님의 뜨거운 숨결을 부어주시며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맞이한 주체101(2012)년의 첫아침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하신 말씀이 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자신께서는 오늘 생전에 수도시민들에게 먹일 기초식품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장군님께 공장을 보여드리는 심정으로 이 공장을 돌아보겠다고 하시였고 공장을 돌아보신 후에는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이 끊임없이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공장의 생산동음을 들으시면서 편히 쉬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토록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을 때에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여주시면서 평양에 올라와서 자신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어버이장군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시며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사회주의바다향기 넘쳐나는 포구에서도, 행복의 별천지인 사회주의선경거리들과 마을들을 돌아보시면서도,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앞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특대사변들이 이룩될 때에도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군 하시였다.

몇해전 11월에 눈내리는 삼지연시를 찾으시여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쉬임없이 내려쌓이는 눈을 맞으시며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에서 늘 입고계시던 사연깊은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하얀 눈발속에서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시며 격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 거연히 서시여 삼천리강토를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을 향도해주고계시는것같다고,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지금 어떤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그러시면서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생존해계실 때처럼 받들어모시고 천지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

드시였던 혁명의 붉은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자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가장 빛나게 실현할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부강번영, 부국강병의 한길로 우리 인민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에 의해 이 땅의 력사가 흘렀다.

그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만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신 장군님께서 품고계시던 리상과 간절한 소원들이 기적과 변혁의 실체가 되여 펼쳐졌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숭고한 경의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는것으로써 수령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고 수령님들께서 품으시였던 뜻과 리상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고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근 한세기의 력사가 흘렀다. 이 나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수많은 혁명렬사들이 빛나는 삶을 아로새기였다.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인민의 행

복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선렬들, 애국렬사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존대를 받는것은 도덕의리의 견지에서 보나 그들이 이룩한 빛나는 공적으로 보나 너무도 응당하고 마땅한것이다.

그러나 혁명선배들을 존중하고 내세우는 기풍이 어느때나, 어느 나라에서나 다 발현되는것은 아니다.

세계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혁명선배, 혁명선렬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부정한 배신자, 변절자들의 추악한 행적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도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혁명투쟁과 혁명업적을 모독하였으며 사회주의를 허물고 자본주의를 복귀시켰다.

혁명선렬, 애국충신들이 사람들의 존

경과 사랑을 받자면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셔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인 혁명렬사들과 애국충신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위훈을 빛내여주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선배로 존대해주시고 극진히 아끼고 내세워주신 사람들가운데서 제일먼저 꼽아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항일혁명투사들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왔고 우리 혁명

의 년대기들마다에 커다란 위훈의 자욱을 남긴 혁명의 1세대혁명가들이다. 그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과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부강조국건설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혁명의 원로로, 로혁명가들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그들을 영광의 최절정에 세워주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령도로 바쁘신 속에서도 한 로투사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다음과 같은 회답을 보내주시였다.

《리을설동지.

또다시 보내주신 편지를 고맙게 받아보았습니다.

로투사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혁명을 위해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습

니다.

을설동지, 항상 건강해주십시오.

로투사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계셔야 **김정은**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전투적인사를 올립니다.

경례!

2012년 4월 27일 **김정은** 드림》

사랑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로투사는 온몸에 스며드는 그 따뜻한 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헤쳐온 항일혁명투사들을 혁명의 1세로, 혁명선배로 내세워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2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였을 때 리을설, 황순희, 김철만, 김옥순, 박경숙, 리영숙을 비

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남먼저 **김정일**훈장수훈자로 내세워주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져있고 그이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김정일**훈장의 첫 수훈자들로 내세워주신데는 주체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일의 로투사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최상의 영광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참가자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대표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돐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 전국로병대회 대표들과 함께 찍으

신 기념사진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념사진들에는 삼륜차를 탄 로투사들이 그이의 제일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항일의 로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면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도 함께 참가하군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언제나 그들보다도 항일의 로투사들을 자신의 제일 가까이에 세워주군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항일의 로투사들을 자신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신데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제일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이의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었다.

항일의 로투사들을 끝없이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받들려 태여난 감명깊은 이야기들가운데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열린 주체104(2015)년 7월 25일에 있은 가슴

뜨거운 일화도 있다.

그날 대회장에 나가시기 전에 로투사들을 먼저 만나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투사들을 먼저 앞세우도록 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한 일이기때문이였다.

온 나라, 아니 세계가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는 뜻깊은 대회장의 주석단으로 어찌 전사들이 먼저 나갈수 있겠는가.

그이께로 다가간 한 일군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로투사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먼저 대회장으로 나가주실것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

에게 항일혁명투사들을 앞세우라고 다시금 이르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선배들을 내세우는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의리입니다. 오늘은 마땅히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의 로투사들이 앞장에서 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로투사들은 가슴이 후더워올라 두눈을 슴벅이였다.

일군들도 눈굽이 젖어들었다.

이렇게 되여 삼륜차에 앉은 항일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보다 먼저 대회장으로 들어서는 감명깊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제나저제나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등단하실 시각을 기다리던 전쟁로병들은 그이보다 먼저 주석단으로 나오는 항일의 로투사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대회가 한창 진행될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녀투사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하는것을 헤아려보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한쪽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그가 탄 삼륜차를 얼싸안으신채 한참동안이나 그의 신고를 덜어드리려 애쓰시였다.

사람들은 령도자가 허물없이 몸소 바닥에 한쪽무릎을 대시고 전사의 불편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시는 가슴뜨거운 장면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력사상 있어본적 없는 눈물겨운 화폭을 접하며 대회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혁명선배들을 제일로 존대하고 아껴주시며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인간, 한없이 자애로운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그날의 화폭앞에서 대회참가자들과 일군들, 아니 천만인민모두가 마음속으로 터친 격정의 웨침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안고계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그들이 우리곁을 떠날 때면 너무도 가슴아파하시며 그들을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한 로투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그의 장의를 국가장의로 하도록 하시고 다심하신 은정으로 장의행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몸소 장의위원장이 되시여 장의행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도 로투사를 잃으신 상실의 비분을 억제하지 못하시여 그의

령구를 찾아주시였다.

투사의 령구앞에 서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원수님께서는 솟구쳐오르는 비분을 누르시며 그토록 존경하던 로투사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였다. 그의 모습을 영원히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두시려는듯…

일찌기 어린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 한생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투사, 자신을 만날 때면 너무 기뻐 고령에도 한달음에 달려와 안기군 하던 로투사.

그러한 그와 영결해야만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통하고 아프신 마음을 달랠길 없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로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그를 항일혁명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장하고 먼저 간 항일혁명투사들과 꼭같이 반신상도 세워주며 렬사릉으로 나갈 때에는 고인의 령구를 장갑차에 싣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와의 영결식장에도 몸소 나오시였다.

그의 령구를 앞세우시고 쏟아지는 비분을 참아가시며 그리도 무거운 걸음으로 영결식장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가는 령구차를 오래도록 머리숙여 바래워드리시였다.

그처럼 사랑하고 아끼시던 로투사를 다시는 오지 못할 길로 그냥 떠나보낼수가 없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의 령구차를 따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그의 유해에 정을 담아 한줌한줌 흙을 얹으시였다.

그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였다. 떠나가는 로투사에게 주시는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였고 그의 령전에 드리는 최상의 경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잊지 못할 로혁명가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픈 마음이 무겁게 실려있었으니 그이는 정녕 령도자이시기 전에 위대한 인간, 위대한 어버이이시였고 인간사랑, 동지애의 화신이시였다.

이렇듯 항일의 로투사들모두를 한없이 존대하시고 사랑과 정을 다하여 품어주고 내세워주시였기에 이들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선배로 존대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사람들가운데는

전쟁로병들도 있다.

주체102(2013)년 7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정중히 모신 《승리상》을 중심으로 드넓게 꾸려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승리상》의 대돌에 금별처럼 빛나는 그 한자한자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 우리 조국의 승리의 년대기에 성스러운 자욱을 남긴 우리 인민모두에게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이며 위대한 전승세대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의지가 응축된 글발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쳐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을 이룩한것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를 아로새긴 특대사변이였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가렬처절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어머니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한 위대한 년대의 참전자들, 승리자들이다.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단련된 전쟁로병들은 전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부강발전에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러한 전쟁로병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내세워주시는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전쟁로병들을 피로써 조국

을 지킨 은인으로뿐 아니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조국결사수호의 맥동을 더해주는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더없이 존경하며 높이 내세우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어린 전국로병대회는 위대한 전승절과 더불어 뜻깊고 의의있게 진행되여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전승을 안아온 이 땅의 모든 전쟁로병들이 백발의 로년기에도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존경과 사랑, 숭고한 경의와 열렬한 축하속에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하는 전승절과 전쟁로병대회.

주체조선의 7월 27일은 경애하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을 그 얼마나 존경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폐부로, 심장

으로 절감하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전쟁로병들이 인생의 황혼기에도 전승의 그날의 환희를 깊은 추억속에 되새겨보게 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 각이한 부문들의 국가적인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그중에서 로병대회가 제일 성대하게 진행되고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전쟁로병들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쟁로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축공연도 보아주시고 경축연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전쟁로병들에게 축배도 부어주시며 그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다.

로병들을 위한 축하연설들에서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들, 진정한 애국자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 훌륭한 혁명선배, 교양자로 값높이 평가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주체111(2022)년 7월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는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것인가.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경모의 정을 담아 혁명의 로선배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이라고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공훈을 떠나서는, 전승세대가 바쳐온 티없이 순결한 헌신적복무를 떠나서는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와 오늘날 더욱 강대해지는 위대한 우리 국가를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쟁로병들을 력사의 풍파

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로, 백절불굴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들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값높은 평가에는 피로써 조국을 수호하였을뿐 아니라 자기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죽어도 버릴수 없는 억척같은 신념으로 새겨준 로병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쟁로병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허리굽혀 인사를 보내시는 숭고한 영상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전쟁로병들이 미처 인사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무상의 행복에 겨워 목청껏 만세만 부르고있는데 원수님께서는 그들모두에게 거듭 허리굽혀 인사를 보내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우리 인민모두를 뜨겁게 울리는 화폭이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였던 한 전쟁로병은 당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정말 꿈만 같았다. 전국로병대회를 또다시 마련해주시고 전쟁로병들을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시는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러르며 눈물부터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전사가 령도자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것이 도리일진대 오히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뜨거운 정을 안겨주시니 이 심정을 어떻게 터놓았으면 좋겠는지 정말 모르겠다.》

전쟁로병들을 마음속에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계시기에, 그들을 제일로 존경하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존경담아, 축복담아, 사랑담아 정히 인사를 보내주신것이다.

전승세대를 끝없이 존경하시고 그들의 공적과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과 의지에 떠받들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위훈과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웅건하게 솟아오르고 력사에 전무후무하게 조선로동당이 묘주가 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자리에 일떠서게 되였으며 전국각지에도 인민군렬사묘들이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금별로 영원히 아로새기며 새롭게 꾸려질수 있었다.

정녕 전쟁로병들, 승리자들에게 드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원한 경의이다.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들마다에서 당

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고귀한 생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새겨안으시고 그들의 공적과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풍모는 만사람의 심금을 끝없이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최하시면서 총결기간 주체혁명의 먼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전사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갈리신 음성에는 먼저 떠나간 전사들을 못잊어하는 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치였으며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혁명동지, 혁명전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부르시는 이름마

다에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페회하시면서도 평온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가식과 변심이 없이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다 먼저 떠나간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선히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지만 총결기간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귀중한 혁명전우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무한히 충직하였던 혁명동지들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아끼여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가 마디마디에

정히 담겨져있는 귀중한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회사에서도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한 생을 아낌없이 바친 혁명동지들, 여기에 참가하지 못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을 경건히 추억하면서 모든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선배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신 경의는 오늘에 이어 래일에로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렇듯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그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혁명선배로 후대들의 기억속에 빛나고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정신, 애국의 넋은 꿋꿋이 이어지게 될것이다.

《고맙습니다》

인간들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자기자신에게 혹은 다른 대상에게 좋게 해주거나 잘해주는데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의 진정을 표할 때가 있다.

그 고마움과 감사는 각이한 형식으로 표현되군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같이 진심과 진정이 어려있고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비껴있다.

이것은 륜리도덕적인 문제로서 인간생활에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으며 더우기 덕과 정이 국풍으로, 사회관계의 기초로 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고맙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사이에 범상하게 오가

던 이 말이 새길수록 비상한 의미로 느껴지고 숭고하고도 고결한 뜻이 담겨진 거대한 진폭으로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는 뜻깊은 사연들이 이 땅에 수없이 태여나고있다.

우리 인민 누구나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사변적인 날이 있다.

주체109(2020)년 10월 10일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희와 영광으로 눈부시던 10월의 그 밤 름름한 열병식참가자들과 사랑하는 인민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열광의 환호에 손을 들어 뜨겁게 답례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충성의 대하가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의 높은 연단에 나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경사스러운 10월명절을 맞이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치는 이처럼 벅차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중중첩첩 막아나서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자기의 붉은 기폭에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영광넘친 조선로동당의 75년, 장구한 세월의 만단사연들을 한가슴에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시각 하고싶으신 이야기 얼마나 많으셨으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

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조선로동당의 75성상이 뜨겁게 응축된 그이의 연설은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고마움으로 일관되여있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우리 당이 응당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였고 응당한 성과라 해야겠지만도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수 없습니다.》

《늘 우리 인민들은 우리 당에 고마워했지만 정녕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주인들은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75성상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자기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바쳐 지켜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고마움에 차넘치는 진정 정중히 삼가 올립니다.》

…

북받쳐오르는 격정에 눈굽을 적시시며 인민들에게 터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고백을 들으며 온 광장, 아니 온 나라가 감격의 눈물바다로 되였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천만아들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행복과 영광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히려 인민에게 거듭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시니

진정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렇듯 인민에 대한 열화의 정과 사랑을 지니고계시는 절세의 위인, 인민의 어버이가 있던가.

순간적인 충동이나 지어먹은 마음으로써는 인민앞에서 이런 진정의 고백을 터놓을수 없다.

오직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위민헌신의 길에서 행복과 기쁨, 보람을 찾으시는 위대한 인간만이 이런 가슴뜨거운 화폭을 펼칠수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의 마감도 위대한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로 장식하시였다.

《끝으로 다시한번 전체 인민이 무병무탈해주신데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어주시는 마음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그처럼 천신만고를 다 겪으시고도 오히려 인민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만장을 울리는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고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연설을 다름아닌, 그 무엇도 아닌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결속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정녕 그것은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드리시는 그이의 숭고한 경의였고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실 불타는 맹세의 분출이 아니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시는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조선로동당의 75년사를 인민과 더불어, 인민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으로 총화하실수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흘러온 10여년세월은 우리 인민이 절세의 위인께서 드리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받으며 삶의 자욱을 새겨온 나날들이였다.

주체101(2012)년 3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 진정이 넘친 감사문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우리 인민이 비통함과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자식으로서, 전사, 제자로서 너무나도 응당한 도덕의리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는 인민들의 소행을 백옥같은 충정으로 높이 평가해주시고 거기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며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용기백배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

나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것입니다.》

공화국의 력사우에 뚜렷이 새겨질 위인의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과 환희로 천만의 심장을 적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신 크나큰 영광과 행복,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갈 열의로

충만된 인민의 일편단심, 그 인민의 소박하고 변심없는 진정과 충정의 마음을 소중히, 고맙게 새겨안으시며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 일념으로 온넋을 바쳐가시는 령도자의 뜨거운 인민관으로 시작되여 흘러온 시대였다.

그 나날들에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것으로 하여, 단위의 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령도자로부터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 최상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은 사람들과 단위들은 얼마나 많은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의 어느한 소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전투원들의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

을 힘껏 떠밀어준 가족소대원들과 광산의 일군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을 받아안았다.

인민군대안의 동해지구 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불과 며칠사이에 례년에 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히 펜을 드시고 한사람한사람 이름까지 꼽아가시며 수산사업소 지휘성원들과 어로공들에게 기쁜 소식을 보내주어 고맙다는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주라고, 이 기세로 물고기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올해에도 꼭 기적창조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고무해주시는 뜻깊은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금골의 광부들과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 종업원들뿐 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응당 할 일을 한 이 땅의 각계층 인민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어린 친필서한과 감사문, 축하문, 편지들을 받아안았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길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혁명일화들이 또 얼마나 많이 꽃펴났는가.

어느한 농장을 찾으시여 농장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오래동안 고심어린 탐구와 열정을 다 바쳐 수확고가 높으면서도 가물과 병충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의 밭벼도 육종해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이 농장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밭벼를 육종해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새로 일떠선 농촌마

을의 선경을 기쁨속에 돌아보시며 그곳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주시며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우리 당의 숙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준다고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절대적힘을 만장약한 주체무기의 시험발사가 대성공한 날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장 수십년세월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겹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숭고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자신의 심정을 다 담기엔 부족하신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리숙여, 허리숙여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하군 하신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례법중의 하나인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는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경의 뜻을 담고있다.

우리 민족의 인사례법이 생겨 오늘까지의 장구한 나날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하는것으로 되여온 그 인사를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 땅의 평범한 인민들에게 하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근로자들과 병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세워보이시면서 축하해주시는 눈물겨운 화폭들은 또 그 얼마인가.

이 세상에 례의범절이라는 말이 생겨 나라와 민족마다 인사법이 각이하고 상대

방에 대한 사랑과 정, 고마움을 표시하는 형식도 다양하지만 세계 그 어디에도 령도자가 평범한 인민들에게 이렇듯 진정을 담아, 열렬하고 뜨거운 인사와 경의를 표시한적은 없다.

온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으신 위대한 어버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위민헌신의 길에 《우리 인민》, 《고맙습니다》라는 절세위인의 심장의 고백이 만사람을 울리며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주체111(2022)년 9월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제시하시는 높은 연단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모질고 지속적인 고생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승리를 굳게 믿어준 우리 인민이 아니였다면 핵보유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이렇

듯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이라고,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특출하고 열렬한 강인성과 애국심은 결국 온갖 난관을 딛고 이겨 우리 국가의 영광과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귀한 위엄을 하늘끝에 떠받들어올렸다고 하시며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도 그이께서는 지난해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는데 대하여 선언하시면서 온 나라 전체 당

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주시였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영광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신 이러한 위대한 어버이를 인민이 어찌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 따르는 길에 일편단심 영원하리라!

시련은 사상최악으로 겹쳐들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인민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지고 그이의 뜻과 구상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나갈 천만의 기상은 천하를 울린다.

그와 더불어 온 나라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의에 비낀 위인의 세계

집 필 신홍섭
편 성 김일미
장 정 채대성 교 정 성현아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2(2023)년 4월 11일
발 행 주체112(2023)년 4월 13일

ㄱ—1587ㄷ